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모형과 모범」

김일수

기학연 부소장, 고려대 법학과 교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제도들 중 많은 부분은 기독교의 모형을 닮은 게 많이 있다. 특히 법제도와 법문화 속에서 그런 모형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생명의 신성성, 소유권의 신성성, 노동의 신성성, 천부인권 등은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언어들이다. 물론 후기현대사회에 이르러 이러한 신성성의 의미는 2000여년 전과 달리 많이 상대화되었지만 말이다.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참여적 형사재판의 모형을 우리 법문화속에 끌어들이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배심재판과 독일의 참심재판과 같은 모형을 혼합한 참배심재판이 2007년이면 우리나라 형사재판 속에도 도입된다고 한다. 법률적인 소양이 없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지닌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참배심원으로 뽑혀 형사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와 함께 법정풍경도 지금과 달리 이른바 공판을 한 기일 내지 두 기일에 끝내는 집중심리제도가 채택되고, 법정의 좌석도 피고인이 지금과는 달리 변호인 옆에 나란히, 검사와 마주보고 앉게 된다. 문제는 법관의 자리이다.

지금까지 검사와 피고인의 자리는 조금씩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요지부동한 자리가 법관의 좌석이다. 그는 법복을 입고 검사와 피고인변호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좌정하여 법정을 지배하고 지휘하는 권능을 갖는다.

일제시대의 법정에서는 검사와 법관의 자리높이가 같았다고 한다. 해방 후 법관의 자리는 그대로 둔 채 검사의 자리가 한 단계 내려왔고, 그 후 피고인은 다시 검사와 변호인의 자리보다 한 단계 낮은 자리에서 법관을 정면으로 혼자 쳐다보고 앉게 되었다. 그러다가 얼마전부터 피고인도 검사와 변호인의 자리높이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법관을 마주보고 외롭게 혼자 앉아 있어야 하는 처지에는 변한게 없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민참여적 사법체계에서 형사법정은 피고인이 변호인과 나란히 앉아 검사를 대등한 위치에서 마주 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도입될 배심원은 검사와 피고인보다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법관은 배심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 자리잡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배심법정도 법관이 법복을 입은 채 높은 법대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유럽대륙의 법정도 법관의 자리가 높은 것은 중세 이래 변하지 않는 법정풍경이다. 비록 법관의 이미지가 신의 대관에서, 왕의 대관으로, 다시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im Namen des Volkes) 재판하는 직업인으로 변모했지만, 법관의 자리만은 변모하지 않았다.

왜 일까? 법이 갖는 신화 때문이다. 법의 신성성 때문이다. 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정의의 검도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고, 그것을 왕에게 맡겼건, 국민에게 맡겼건 법을 발견하고 정의를 선포하는 법관의 자리는 이 신성성의 배경 속에 등장하는 권능과 존엄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계몽주의가 중세적 신화를 깨뜨리고, 인간에게 이성과 자유의 길을 열어 준지 200여년이 훨씬 흘러갔지만, 법정의 풍경 속에는 이 신화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다. 법정이 세상과 고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잔재가 Long Run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의 계몽주의는 아직 미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국민참여적 형사재판의 이념에 따라 공판구조를 바꾸면서, 이 신화를 깨뜨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래 식민지화된, 잘못 길들여진 인식 때문이다. 이 인식의 틀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지평,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법관도 배심원도 피고인과 변호인과 검사와 함께 하는 자리가 되도록 대를 낮추어야 한다. 진실과 정의를 위에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참여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이념인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차단벽을 설치한단 말인가? 진실에 관해서만은 형사법정에서 피고인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 법관이 신이 아닌 이상, 피고인보다 사건의 진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죄인이기 때문에 법대 밑에 서야 한다면, 아직도 중세의 규문주의 잔재가 깔린 논리요, 법의 신화화에 오도된 논리일 뿐이다.

힘주어 말하건데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법 때문에 누군가 다른 누구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면 이 같은 민주적인 법이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의 논의에서 정의를 선고하는 법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같고, 교회당 목사의 설교단이 높듯, 법정에서 법관의 법단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맥락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과연 그래야만 할까? 우선 법관의 법복과 목사의 성의를 동일시하는 내용적인 연계에 의문이 있고, 가령 백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설교단이 높아야 할 성경적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언덕 저편에 높이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호수에 떠온 배 위에서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높아진 설교단이 음향장치를 동원한 오늘의 예배당에서 음성의 확실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곳에 어떤 신화적인 요소는 감추어져 있지 않은지 성찰해 볼 일이다.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예배드림의 구성부분이다. 높이가 지닌 신성성의 의미가 진정 있는 것일까?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네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라고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야곱이 벵엘에서 돌베개했던 곳은 광야의 낮은 곳 일부이지 높은 모래언덕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설교단이 오늘날까지 전래되어 온 법대의 모형이라면, 이제 우리들은 기독교적 모형을 버리고 기독교적 모범을 보여야 할 소명 앞에 선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중처럼 섬기려 함이요, 많은 사람을 위해 생명까지 대속물로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의 교회,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사람들의 연약한 부분까지 가슴에 품고 예수의 고귀한 자기희생의 삶을 본받아 섬기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는가? 섬기면서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엮어갈 모범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할 때가 지금 아닌가?